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유형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민 하 영(대구기톨릭대학교 부교수)

I. 서론

미국발 금융 위기로 불거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구직의 어려움과 실직의 불안 등이 구체화되면서 사람들이 호소하는 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스트레스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최근 높아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개인의 안녕감 측면에서 현명하게 관리되고 극복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성인기 스트레스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 생애 초기부터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교육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연구는 생애 초기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측면 뿐 아니라 성인기 스트레스를 조기에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내 스트레스 연구는 3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 연구(민하영·유안진, 1998; 한미현·유안진, 1995)와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려는 연구(김미예, 2005; 박소영·문혁준, 2005; 신은영·김경연, 1996; 이영환·백지은, 1997; 정현희, 2002) 그리고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심리적 또는 행동적 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스트레스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연구(김은혜·김광웅, 2002; 박미숙, 2006; 전숙영, 2008) 등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은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가 성별에 따라 차이(박소영·문혁준, 2005; 이근복·정우석·염유식, 2008; Parker & Asher, 1993; Rudolph & Hammen, 1999)를 보인다는 것과 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스트레스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신생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남아는 여아에 비해 스트레스와 관련된 코티솔 홀몬을 더 많이 분비한다고 보고하면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일정한 스트레스 자극에 더 쉽게 상처를 받는다고 보고(Davis & Emory, 1995)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를 보다 심하게 느낀다고 보고하는 연구(Davies & Windle, 1997)도 있다. 생애 초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성차를 보고하고 있으나 연구에 따라 성차의 방향성은 일관되지 않고 있다. 스트레스의 성차 방향이 일관되지 않은 것에 대해 Greene와 Larson(1991)은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남녀 아동이 경험하는 부분이 다르고 경험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남녀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평가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스트레스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총량에 초점을

두기보다 스트레스 유형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에서 성차를 밝힌 선행연구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으로 살펴보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개별 유형으로 측정 한 후 하나의 단일 점수로 합산(박미숙, 2006) 한 다음 이를 토대로 성차를 밝히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관련(민하영·유안진, 1999), 또래관련(민하영, 2002), 학업관련(Huan, Yeo, Ang, & Chong, 2006), 과외학습관련(임자성·채규만, 2005), 비만관련(김은혜·김광웅, 2002; 전숙영, 2008), 경제관련 스트레스(한미현, 1993; Evans, & English, 2002) 등 특정 유형의 스트레스에 대한 성차만을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유형 중 어떤 유형의 스트레스가 학령기 남아에게 또는 여아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가에 대한 정보는 심희옥(1998)과 황혜정(2006)의 연구가 있을 뿐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유형을 중심으로 남녀 아동의 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고, 어떤 유형의 스트레스에 의해 남녀 아동이 각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성별로 접근하는 것은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특성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성에 따라 스트레스를 관리하거나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근복 등, 2008; Rudolph & Hammen, 1999)을 재고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바로미터로 간주될 만큼, 우울성향이나 외로움, 문제행동 또는 자살과 같은 심리, 행동적 차원의 부정적 적응 결과와 직,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남윤주·이숙, 2008; 심희옥, 1998; Rowleson & Felner, 1988). 그러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서 성차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Davies & Windle, 1997; Davis & Emory, 1995)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형의 일상적 생활스트레스가 학령기 남아나 여아의 심리적 안녕감을 더 많이 위협하는지에 대한 정보(Hankin, Mermelstein, & Roesch, 2007; Rudolph & Hammen, 1999)는 국내에서 거의 제공(심희옥, 1998)되고 있지 않다. 유사한 정도의 대인관련 스트레스에 대해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결과(Rudolph & Hammen, 1999), 여자 청소년이 대인간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더 우울한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결과(Moran & Eckenrode, 1991) 그리고 남자 청소년의 우울성향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학업 또는 성취와 관련된 부분에 의해 좀 더 유의하게 영향받는다라는 연구결과(Nolen-Hoeksema & Girus, 1994) 등을 고려해 볼 때, 여아의 심리적 안녕감은 부모나 친구 등 대인간 스트레스에 의해 보다 더 영향받을 것으로 보여지며 남아의 심리적 안녕은 여아에 비해 학업관련 스트레스에 의해 보다 더 영향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적응 결과인 심리적 안녕감(Diener, 1994)에 대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남아와 여아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유형의 차이는 유의한가?
- <연구문제 2>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유형 중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학령기 남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학령기 아동 중 설문 응답이 가능한 초등학교 6학년 남녀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은 321명으로 남자는 163명(50.8%), 여자는 158명(49.2%) 이었다.

2. 조사도구

1)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측정은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런 편이다'(2점), '정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부모관련, 친구소외관련, 친구공격관련, 학업관련, 교사관련 스트레스 척도의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α =.88, .86, .80, .83, .75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표준편차)은 각각 .32.40(9.17), 14.89(5.44), 12.07(4.57), 15.89(5.28), 4.15(1.82)로 나타났다.

2)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척도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을 Kovacs(1981)에 의해 개발된 아동용 우울 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우울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세 문장으로 구분된 증세를 제시해 놓았다. 예를 들어 '나는 가끔 슬프다'(2점), '나는 자주 슬프다'(1점), '나는 항상 슬프다'(0점)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세 문장 중에서 지난 2주간 경험한 증세를 가장 잘 표시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범위는 0-4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을 적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며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4문항으로 구성된 CDI의 문항간 내적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α 는 .72로 나타났으며, 평균(표준편차)은 35.12(2.97)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프로그램의 다변량분석, 반복적 다변량 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alpha < .05$ 에서 검증하였다.

III. 결과분석

1.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유형의 차이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일상적 생활스트레스의 부모관련, 친구소외, 친구공격, 학업관련, 교사관련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스트레스의 다변량분석 결과

구 분	부모관련	친구 소외관련	친구 공격관련	학업관련	교사관련	Wilk's Lambda	F(df)
남아(163)	32.68 (9.04)	14.82 (5.80)	12.63 (5.00)	15.60 (5.41)	4.07 (1.78)	.96	2.85* (5,315) p=.016
여아(158)	32.11 (9.33)	14.87 (5.05)	11.50 (4.01)	16.19 (5.14)	4.23 (1.87)		
t값	.56	-.10	2.23*	-.99	-.79		

주) * p<.05

다변량분석결과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스트레스 유형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5, 315)=2.85, p<.05).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영역은 친구공격관련 스트레스로, 남아는 여아에 비해 친구의 신체적, 언어적 공격이나 놀림과 같은 갈등 상황에서 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319)=4.99, p<.05)

2.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중 가장 높은 생활 스트레스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유형 중 남아와 여아가 경험하는 가장 높은 스트레스 하위영역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관련(10문항), 친구소외관련(8문항), 친구공격관련(7문항), 학업관련(8문항), 교사관련(3문항) 스트레스 값을 각 문항수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반복측정을 통한 다변량분석을 남아와 여아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아(F(4, 159)=34.65, p<.001)와 여아(F(4, 154)=41.23, p<.001) 모두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하위 영역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아와 여아 모두 학업관련, 친구공격관련, 부모관련, 친구소외관련, 교사관련 순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학업관련(M(SD)=1.95(.68)), 친구공격관련(M(SD)=1.80(.71)), 부모관련(M(SD)=1.63(.45)), 친구소외관련(M(SD)=1.48(.58)), 교사관련(M(SD)=1.36(.59)) 순으로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아 경우 학업관련(M(SD)=2.02(.64)) 외 친구공격관련(M(SD)=1.64(.57)) 스트레스는 부모관련(M(SD)=1.61(.47)) 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낮은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관련(M(SD)=1.41(.62)) 스트레스도 친구소외관련(M(SD)=1.49(.51)) 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스트레스 유형에 대한 반복적 다변량분석 결과

구 분	부모관련	친구 소외관련	친구 공격관련	학업관련	교사관련	Wilk's Lambda	F(df)
남아(163)	1.63 (.45)a	1.48 (.58)b	1.80 (.71)c	1.95 (.68)d	1.36 (.59)e	.53	34.65* ** (4,159)
여아(158)	1.61 (.47)a	1.49 (.51)b	1.64 (.57)a	2.02 (.64)c	1.41 (.62)b		
t값	.56	-.10	2.23*	-.99	-.79		

주) abc 등 서로 다른 문자끼리는 평균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주) *** p<.001

3. 학령기 남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

학령기 남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남아와 여아를 각각 구분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유형 중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소외관련 스트레스만이 남아의 심리적 안녕감을 24%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R^2=.24$)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부모관련 스트레스($\beta=-.21$, $p<.001$)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학업($\beta=-.20$, $p<.01$)이나 친구소외관련 스트레스($\beta=-.18$, $p<.01$)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학령기 남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일상적 생활스트레스 유형의 단계적 중회귀분석 결과

변 인	학령기 남아의 심리적 안녕감(n=163)		R ²	ΔR ²	F(df)
	B(S.E)	β			
상 수	58.29(.45)				
부모관련	-1.50(.06)	-.21***	.17	.17	32.55*** (1,160)
학업관련	-.23(.10)	-.20**	.21	.04	21.49*** (2,159)
친구소외관련	-.20(.09)	-.18*	.24	.02	16.28*** (3,158)

주) * p<.05, ** p<.01, *** p<.001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유형 중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친구소외관련 스트레스만이 여아의 심리적 안녕감을 39%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R^2=.39$)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부모관련 스트레스($\beta=-.42$, $p<.001$)가 친구소외관련 스트레스($\beta=-.18$, $p<.01$)보다 심리적 안녕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령기 여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일상적 생활스트레스 유형의 단계적 중회귀분석 결과

변인	학령기 여아의 심리적 안녕감(n=163)		R ²	ΔR ²	F(df)
	B(S.E)	β			
상수	57.42(.46)				
부모관련	-.33(.06)	-.42***	.32	.32	74.06*** (1,156)
친구소외관련	-.44(.11)	-.18***	.39	.07	49.67*** (2,155)

주) *** p<.001

IV. 논의 및 결론

서울특별시 소재 3개 초등학교 6학년 남녀 아동 32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해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적 생활스트레스 유형의 특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친구공격관련 스트레스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또래공격관련 스트레스를 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보다 공격적(심희옥, 1998; 한유진, 2006; Tremblay, 2000)이며, 외현적 공격성이 크다는 점(최보가·임지영, 1999; Crick & Grotpeter, 1995; Rys & Bear, 1997)과 공격적 행동이 보다 수용된다는 점(Keenan & Shaw, 1997)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학령기 아동은 남녀아 모두 부모관련, 친구소외, 친구공격, 학업관련 그리고 교사관련 스트레스 중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증가(김교현·권선중·심미영, 2005)하면서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한 박미숙(2006)의 연구 및 일상의 생활 스트레스 중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황혜정(2006)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중고등학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가 초등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남아는 학업관련, 친구공격, 부모관련, 친구소외관련, 교사관련 순으로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아는 남아와 마찬가지로 학업관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다음으로 나타난 친구공격과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낮게 나타난 친구소외관련과 교사관련 스트레스에서도 두 유형간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학령기 남녀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학업관련 스트레스보다 낮으며 친구공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다.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경우 남아는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친구공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다음으로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으며, 여아는 학업관련 스트레스보다 낮지만 친구공격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학령기 고학년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의 생활이 확대됨에 따라 친구들과의 접촉이 증가하고 친구와의 상호작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친구의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 행동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대됨으로써 나타난 것이라 보여진다. 친구공격 스트레스의 경우 수평적 친구관계안에서 주어지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학업관련 스트레스 다음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셋째,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은 남아와 여아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모관련, 친구소외관련, 친구공격관련, 학업관련 그리고 교사관련 스트레스와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모관련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연구결과는 가족관계, 경제 및 물리적 환경, 학업스트레스, 교사관계, 친구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우울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남윤주와 이숙(2008)의 연구결과와 같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고 지지적이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아동의 경우 높은 우울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이영미·민하영, 2004; Patten, Coffey, Posterino, Calin, & Wolfe, 2001) 및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 부모에 대한 긴장과 갈등이 높은 상황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높은 우울성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양유진·정경미, 2008; 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1994)와 유사하다.

친구소외관련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연구결과는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의 우울이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적은 즉 친구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제공받거나,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등 자신의 가치에 대해 존중받거나, 친구로부터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은 경우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정영주·정영숙, 2007; Pedersen, Vitaro, Barker, & Borge, 2007; Williams, Connolly, & Segal, 2001)와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친구공격관련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연구결과는 공격당하는 학생이 우울 성향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예성·김광혁, 2008; Estefania, Gonzalo, & Juan, 2005; Olweus, 1994)와 유사하다. 학업관련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연구결과는 학교 공부 중에 경험하는 정서적 상태나 만족감 정도가 우울성향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인다고 한 연구결과(Ang & Huan, 2006; Reich, McCall, Grossman, Zautra, & Guamaccia, 1988) 및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성향을 설명한다는 연구결과(Lee & Larson, 2000)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은 남아 여아 모두 부모관련, 친구소외관련, 친구공격관련, 학업관련 그리고 교사관련 스트레스 중 부모관련과 친구소외관련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아동 모두 심리적 안녕감이 일상적 생활스트레스 유형 중 부모관련과 친구소외관련에 의해서 유의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이 부모나 또래 등 대인관계적 요소에 의해 발병하기 쉽다는 연구결과(Gotlib, & Hammen, 1992)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남아의 경우 여아와 달리 심리적 안녕감이 부모관련과 친구소외관련 스트레스 외에 학업관련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유의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의 우울이 일상적 스트레스 중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설명된다고 보고한 남윤주와 이숙(2008)의 연구결과 및 남아가 학업 성취 등이 포함된 학교 관련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우울한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결과(Nolen-Hoeksema, & Girus, 1994; Sund, Larsson, & Wichstram, 2003)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실은 남아의 심리적 안녕감은 <표 3>에서처럼 부모관련, 친구소외 그리고 학업관련 스트레스 등 3개의 스트레스 유형에 의해 24% 정도 설명되고 있지만 여아의 심리적 안녕감은 <표 4>에서와 같이 부모관련과 친구소외관련만으로도 39%나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의 주요 준거인 우울이 관계중심적 문화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보다 높게 나타날 만큼

(Allwood et al., 2006) 대인관계적 요소에 의해 발생(Gotlib, & Hammen, 1992)되기 쉽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여아가 남아에 비해 대인간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우울적 성향으로 반응한다는 연구결과(Gore et al., 1993; Moran & Eckenrode, 1991; Shih, Eberhart, Hammen, & Brennan, 2006)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애 발달적 시각을 적용해 볼 때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연구는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특성 및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규명한 이 연구는 성별에 따라 생애 초기 스트레스나 청소년기 및 성인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면에서 의미있다 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는 학령기 남녀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의 특성 및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유형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가 스트레스 유형 내 또 다른 요인에 의해 매개 또는 중재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문제 2>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초등학교 6학년 남녀 아동 모두가 학업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공격관련 스트레스를 부모관련 스트레스 만큼이나, 또는 보다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문제 3>에서 보면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이들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부모관련 스트레스나 친구소외관련 스트레스보다 상대적으로 적거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상의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때, 부모관련 스트레스나 친구소외관련 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거나 중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유형 사이에 나타나는 매개나 중재 역할이 확인된다면, 다양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유형 가운데 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스트레스의 영역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 김교현 · 권선중 · 심미영(2005). 초등학생의 시험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1)**, 113-126.
- 김미예(2005).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및 건강문제. **아동간호학회지**, **11(1)**, 83-89.
- 김석우 · 최용석(2001). **인과모형의 이해와 응용**. 서울: 학지사.
- 김예성 · 김광혁(2008).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괴롭힘 경험유형에 따른 우울불안, 학교유대감, 공격성의 차이 및 피해경험을 통한 가해경험 변화. **아동학회지**, **29(4)**, 213-229.
- 김은혜 · 김광웅(2002). 아동의 비만스트레스와 사회성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5(2)**, 65-80.
- 남윤주 · 이숙(2008). 아동이 지각한 애착과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2(2)**, 1-16.
- 박미숙(2006). 학령후기 아동의 스트레스와 건강지각 및 건강증진 행위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18(1)**, 58-68.-
- 박소영 · 문혁준(2005).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변인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3(9)**, 71-84.

- 민하영(2002). 학령기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및 또래 - 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과 외로움. **아동학회지**, **23(3)**, 51-63.
- 민하영 · 유안진(1998).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19(2)**, 77-96.
- 민하영 · 유안진(1999).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이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9)**, 1-12.
- 신은영 · 김정연(1996).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 사건,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빈도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대한가정학회지**, **34(4)**, 33-47.
-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우울성향: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3-144.
- 양유진 · 정정미(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회피적 정서조절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매개요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669-688.
- 이근복 · 정우석 · 염유식(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과 학급 수준에서의 요인들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5(5)**, 75-107.
- 이영미 · 민하영(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 **대한가정학회지**, **42(4)**, 1-10.
- 이영환 · 백지은(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기지각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4**, 91-112.
- 임자성 · 채규만(2005). 초등학교 학생의 과외학습 스트레스와 관련한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295-311.
- 전숙영(2008). 아동의 비만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증재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55-163.
- 정영주 · 정영숙(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지지 간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67-88.
- 정현희(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7)**, 25-39.
- 최보가 · 임지영(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한미현(1993).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82-194.
- 한유진(2006).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 능력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15.
- 황혜정(2006).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9(1)**, 193-216.
- Allwood, C., Berry, J., Boski, P., Cheung, F. M., Hwang, K. K., Kao, H., Kim, U., Park, Y. S., Marai, L., Moghaddam, F. M., Nikora, L. W., Levy, M., Masters, B., Waitoki, M., Nsamenang, A. M., Protacio-De Castro, E., Fabros, M. C., Kapunan, R., Saraswathi, T., S., Sinha, J. B. P., & Yang, K. S. (2006). Origins and development of indigenous psychologies: An internation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1(4)*, 243-268.

- Ang, R. P. & Huan, V. S. (2006).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Testing for depression as a mediator using multiple regression. *Child Psychiatry Hum Development*, 37, 133-143.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003-1014.
- Davies, P. T., & Windle, M. (1997). Gender-specific pathways between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family discord, and adolescent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 657-668.
- Davis, M. & Emory, E. (1995). Sex differences in neonatal stress reactivity. *Child Development*, 66, 14-27.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Estefania, E., Gonzalo M. & Juan, H. (2005). The influence of violent behavior and victimization at school on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 of parents and teacher. *Adolescence*, 40(157), 188-196.
- Evans, R. & English, K. (2002). The environment of poverty: Multiple stressor exposure, psychophysiological stres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3, 1238 - 1248.
- Gotlib, I. H. & Hammen, C. (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depression: Toward a cognitive-interpersonal integration*. NY: Wiley.
- Greene, A. L. & Larson, R. W. (1991). Variation in stress reactivity during adolescence. In E. M. Cummings, A. L., Greene, & K. H. Karraker(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pp.195-209). Hillsdale, NJ: Erlbaum.
- Hankin, B. L., Mermelstein, R., & Roesch, L. (2007).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Stress exposure and reactivity. *Child Development*, 78, 279-295.
- Huan, V. S., Yeo, L. S., Ang, R. P., & Chong, W. H. (2006). The influence of dispositional optimism and gender on adolescent's perception of academic stress. *Adolescence*, 41(163), 533-546.
- Huston, A. C. (1983). Sex-typing.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Vol. 4, pp. 388-467). NY: Wiley.
- Keenan, K. & Shaw, D. (1997). Developmental and social influences on young girls' early problem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21(1), 95-113.
- Kovacs(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46, 305-315.
- Lee, M. & Larson, R. (2000). The Korean "examination hell": Long hours of studying, di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249-272.
- Moran, P. & Eckenrode, J. (1991). Gender differences in the costs and benefits of peer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 396-409.
- Nolen-Hoeksema, S. & Girus, J. S. (1994).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 424-443.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 - 621.
- Patten, G. C., Coffey, C., Posterino, M., Calin, J. B., & Wolfe, R. (2001). Paternal 'affectionless control' in adolescent depressive disorder.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6, 475-480.
- Pedersen, S., Vitaro, F., Barker, E. D. & Borge, A I. H. (2007). The timing of middle-childhood peer rejection and friendship: Linking early behavior to early-adolescen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8(4), 1037-1051.
- Reich, J. W., McCall, M., Grossman, R., Zautra, A. J., & Guarnaccia, C. (1988). Demands, desires, and well-being: An assessment of events, responses and outcom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 392-402.
- Rowlison, R. T., & Felner, R. D. (198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432-444.
- Rudolph, K. D., & Hammen, C. (1999). Age/gender as determinants of stress exposure, generation, and reactions in youngsters: A transaction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70, 660-677.
- Rys, G. S. & Bear, G. G. (1997). Relational aggression and peer relations: Gender and developmental issues. *Merrill-Palmer Quarterly*, 43, 87-106.
- Shih, J. H., Eberhart, N. K., Hammen, C. L. & Brennan, P. A. (2006). Differential exposure and reactivity to interpersonal stress predict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5(1), 103-115.
- Sund, A. M., Larsson, B., & Wichstram, L. (2003). Psychosocial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12 - 14 year-old Norwegia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 588 - 597.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129-141.
- Williams, S., Connolly, J., & Segal, Z. V. (2001). Intimacy in relationships and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in adolescent girls. *Cognitive Therapy & Research*, 25(4), 477-496.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유형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김 성 희 (순천대학교 교수)

이 논문은 초등학교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적 생활스트레스 유형의 특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로, 남녀 아동 간에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

건강한 생활의 영위를 저해하는 우울 성향이 성인뿐 아니라 아동에게서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 문제 해결에서 성인지적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심리적 안녕과 특성의 한 부분으로서 성의 차이에 관심을 갖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스트레스와 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의 동향이 성인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므로 아동에 관심을 두는 이 연구는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생활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성인기 스트레스의 관리를 위한 생애 초기 스트레스에 관심을 갖고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스트레스의 유형과 성별에 따른 경험 및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고 있으므로 문제 예방의 차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가 아동의 우울증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예상되므로 결과의 분석 및 해석에서 유용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남아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에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아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중된 학습 스트레스는 흔히 아동 우울증의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는데 예상과는 달리 여아들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학습 및 우울증에 대한 매우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분석하고 해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스트레스원은 활동의 증가, 또래관계의 복잡성 증가와 더불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친구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 유형을 친구소외관련과 친구공격관련 유형으로 세분화시켜 본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분석된 스트레스 유형 외에 외모관련 유형 및 경제관련 유형 등 스트레스원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포함하면서 각 유형을 좀 더 세분시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들은 모두 학업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의 우울증은 과업보다 관계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아동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 아동 우울증이 방치될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결과는 부모 등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으므로 우울증 조기 발견과 치료, 예방을 실천하는 현장에서 연구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